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	기간	21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수세인트마리에 있는 알고마대학으로 갔음. 대학은 크지 않고 조그마함. 분위기는 조용한 시골 분위기임. 학교에 사먹을 곳은 딱히 없고 팀홀튼 한 개 있음.
수업	리스닝, 문법, 읽기 등으로 수업이 진행됨. 숙제는 거의 없음. 선생님들 성향이 다 각기 다르심. 무조건 수세인트마리 사람들 친절하다고 생각하면 안됨. 그래도 우리 학교 프로그램 담당해주시는 선생님들은 다 좋으시고 착하심. 한국에 대해 발표도하고 마지막에 메모리북도 만듦.
Activity	스키, 개썰매, 하키 보러가기, 스케이트, 알파카공원 등등 다양한 활동을 했음. 따로 비용이 들지는 않았음. 주말에도 학교 일정 때문에 항상 바빴음. 거의 다 야외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추운날에는 너무 힘들었음. 그래도 다양한 액티비티를 많이 해서 재밌었음. 추위 때문에 액티비티들이 몇 개 취소되기도 함.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너무 추움. 그냥 추움. 눈도 계속 쌓여있고 우리가 갔을 때 날씨가 더욱 추워서 항상 –20도 이하였음. 얼굴이 맨날 트고 머리가 언다. 부츠 꼭 사가야함. 안사가면 못다님.
안전	안전함. 걱정할 필요 없음. 그리고 웬만하면 일찍 다니게 되고 다 같이 다녀서 괜찮음.
숙소	학교기숙사( ) 홈스테이(0) 외부 숙소( ) 기타( )

	홈스테이는 홈스테이 나름임. 나는 할머니 혼자 사셔서 집이 조용했음. 방은 깔끔하고 좋았음. 다양한 음식을 해주셔서 좋았음. 간혹 입에 맞지 않는것도 있지만 경험임. 그러나 나를 데리고 어디를 가던가 활동을 하시지는 않았음. 친구네 홈스테이 따라서 많이 다님.
식사	학교식당( ) 홈스테이 (0) 외부식당 (0) 기타( ) 초반에는 거의 사먹음. 근데 식당이 별로 없어서 거기다 거기임. 집에서 해주시는거 먹는것도 경험이라 재밌음.
교통	교통이 진짜 최악임. 주말에는 버스가 한시간에 한 대고 평일이랑 루트도 달라서 엄청 오래걸림. 평일엔 버스가 30분에 한 대임. 그냥 최악이라고 보면됨. 어디 나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교통임. 집 위치가 중요한 듯 함.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80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	50	
생활	30	
합계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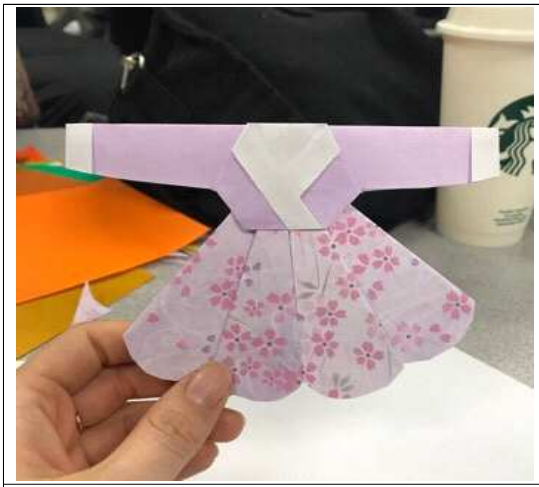
5. 출국 전 준비사항

기대 많이 하지 마세요. 날씨가 추우니까 단단히 준비하고 가세요. 쇼핑할 곳은 정말 없고 관광할 곳도 없습니다.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기엔 좋아요. 부츠는 꼭 사가는 것이 좋아요. 운동화 못신어요. 핫팩이랑 목도리 필수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낯선 나라에 가서 홈스테이 사람들과 살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재미있고 색다른 경험이었다. 날씨도 너무 춥고 시골이고 교통도 최악이지만 그래도 재밌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한번쯤은 가면 많은 경험과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한국과는 공기가 너무 달라서 좋았어요. 비록 시골이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재미를 찾을 수 있어요. 학교에 있는 유학생들은 다 착해요. 영어를 많이 배우진 못하지만 그것 말고 더 많은 값진 추억을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봉사활동 겁나 많이함. 처음에는 봉사활동이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매번 똑같은 활동하니까 질리고 힘듦. 봉사 한번하면 진이 다 빠짐. 하다보면 요령도 생기고 애기들은 귀여움.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봉사- 한복종이접기

학교로 봉사

하키 관람

스키장-엄청높음

태국 음식점		알파카공원